

정읍서 만나는 피카소와 샤갈

시립미술관 5월 16일까지 특별전
현대미술 거장들 작품 150여점
국내 작가들 미디어 작품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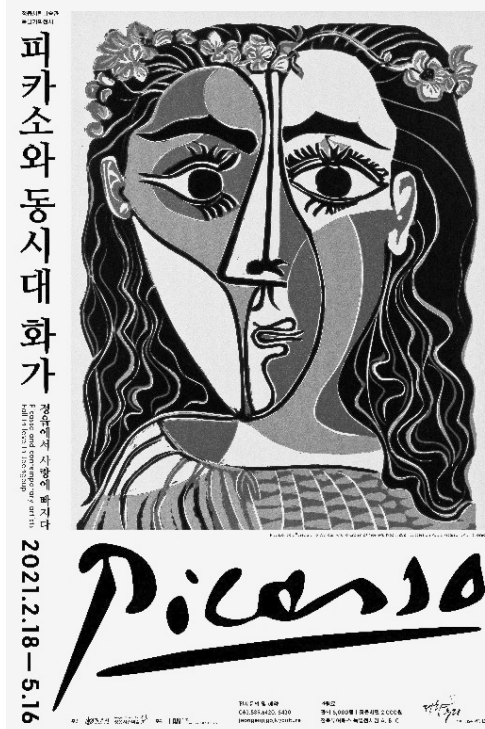
파블로 피카소 등 세계 미술사에 큰 획을 그었던 거장들의 작품 전시회가 정읍에서 열린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오는 5월16일까지 88일간 정읍시립미술관에서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정읍에서 사랑에 빠졌다'를 주제로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예술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기획전시회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객들의 출입현상을 우려해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됐지만 내용상으로는 지방에서 보기 드문 대형 전시회다.

전시작품은 20세기 최고의 예술가로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만 무려 88점에 이른다. 1점의 유화와 판화 20점, 드로잉 2점, 실버점지 10점, 도자기 49점이다.

또 입체주의를 창안한 조르주 브라크(6점), 색채의 미술사 마르크 샤갈(6점), 초현실주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5점)와 호안 미로(2점), 앙브로즈 멜을 대표하는 장 포트리에(2점)와 그의 영향을 받은 장 뒤비페(2점), 아수파를 이끌었던 모리스 드 블라맹크(1점), 여성화가 마리 로랑생(2점), 무한한 공간의 예술가 루치오 폰타나(4점) 등 피카소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 30점이 전시된다. 여기에 프랑스 사진작가 앙드레 빌레르가 피카소의 작업실을 드나들며 흑백 사진으로 담아낸 작업 중인 피카소의 모습, 아내 자클린과의 모습 등 피카소의 일상까지 엿볼 수 있는 사진작품 32점도 만날 수 있다.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들을 재해석하는 국내 작가들의 미디어 작품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도 전시회의 풍성함을 더했다.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2021.2.18-5.16

장승효 작가는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인 브라크의 큐비즘과 달리의 초현실주의를 21세기 관점에서 재해석한 영상 작품을 전시하고, 하준수 작가는 AI를 활용해 피카소의 화풍으로 시민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흥미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다만, 전시회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단체 관람은 불가능하며 전시해설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미술관 측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를 분산할 방침이다.

관람할 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검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동선도 꼭 지켜야 한다.

관람료는 정읍시민은 2000원, 이외 지역 거주자는 5000원이며, 카드로만 받는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이 피카소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담은 작품을 비롯해 20세기 현대미술 거장들의 예술적 감성을 함께 공감하며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난 18일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정읍에서 사랑에 빠졌다' 특별전 개막식 후 유진섭(맨앞) 시장 등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함파우 유원지 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광한루원 연계 '체험형 관광 클러스터' 구축

남원시 2023년까지 707억 투입
모노레일·짚와이어·정원 등 조성

남원시는 다양한 관광시설이 있는 함파우유원지 유원지에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 뒤 광한루원과 연계해 '체험형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남원시는 우선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3년까지 707억원을 들여 민간 개발사업, 리플라스사업,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민간 개발사업은 383억원을 투입해 순환형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2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모노레일은 함파우유원지 내 남원시립 김병중미술관, 남원예술촌, 항공전문대, 춘향테마파크 등을 둘러보는 2.44km 길이로 8인승 15량을 운행할 계획이다.

짚와이어는 항공전문대 인근의 70m 높이 짚타워에서 광한루원으로 이어지는 800m 길이의 성인용과 436m의 어린이용 등 2개로 구성된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춘향제 개막 이전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리플라스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2023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28년간 흥



남원시가 민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순환형 모노레일 춘향정거장 조감도. <남원시 제공>

물로 방치된 옛 비사벌포도 부지에 미디어아트 시설인 '문라이트 파크'를 만든다.

옛다솜이야기원은 함파우유원지에 8만㎡ 규모 정원과 실내 어드벤처 시설로 구성되며 내년까지 174억원을 투입돼 추진된다.

남원시는 이들 시설이 갖춰지면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인근 광한루원과 연계하는 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전통의 광한루원과 체험 중심의 함파우 유원지 관광시설을 연결하면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진다"며 "관광도시 남원이 명실상부한 체험형 관광지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주민안전보험 확대...코로나19 사망자도 300만원

고창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안전보험은 고창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안전공제에 일괄 가입해 각종 재해·재난·범죄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일액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 새롭게 갱신되는 보험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사자 상해보상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및 상해보상 ▲농기계 사망 및 후유장애 ▲신종감염병 사망 등 총 16개 항목이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의사사자 상해보험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성폭력 범죄상해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종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 사망 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주민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고창군 재난안전과에 피해상황을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형호 기자 khj@

익산시, 지역 기록정보 자료 수집·활용 민간관리위원회 가동

분야별 전문가 11명 위원 위촉

익산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민간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민간기록관리위원회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들은 학계 및 단체, 민간전문가 등 분야별 기록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익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모으고 활용하는 방안에 협력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민간기록물의 수집계획 수립과 가치 평가, 구술채록비 선정 심의, 기록물의 수집 조사·활용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자문한다.



정현을(맨 왼쪽) 익산시장이 민간기록관리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역사·사진·고서·도시공학·문화예술 등 각자 전문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공유해 익산의 기록화 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

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시는 오는 5월 민간기록물 포럼을 개최해 기록을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6-9월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과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 관련 민간기록물 기증은 연중 진행 중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의 변화와 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주요 민간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요 기록유산으로 보존해 나가겠다"며 "익산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 창작·예술·교육 등 인적자원 집중 투자

순창군은 창작과 예술, 교육에 집중 투자해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진다.

순창군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개인과 단체 등 우수한 인적 자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예산 지원 공모사업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창군은 적절한 예산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적자원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통해 개인별 소득창출과 자립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마련된 미래전략전담팀 주관 하에 인적·공간적 자원에 대한 사전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 민간 부문에서 참여 가능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구원한다.

특히 각종 공모사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거를 조례로 마련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양·문화 자원의 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 문화역량 성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